

 인천광역시	보 도 자 료		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
	배포일자	2023년 3월 17일(금) 총 3매	
담당 부서	건강증진과	담당자	• 정신건강팀장 이은실 ☎440-1581 • 담당자 심연희 ☎440-1582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			

인천시, 올해 4만5천여 생명지킴이 양성위해 강사확대

-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 교육 실시 ... 올해 강사 60명 추가 양성 계획 -
 - 올해 생명지킴이 4만5천명까지 양성해 자살예방 활동 강화도 -

인천시가 올해 4만5천여명의 생명지킴이를 추가로 양성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확대한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자살예방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 강사인력 기반을 확대·강화하고자 16일~17일 양일간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기관 종사자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명지킴이 강사양성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. 시는 이번 32명을 포함해 연말까지 총 60명의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.

이번 교육에는 김형준(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), 이은진(수원대학교), 권순정(한국자살예방협회) 전문 교수단의 강의에 따라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인 보고·듣고·말하기로 진행됐으며, △생명지킴이의 역할 △자살위험 경고신호 △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실제 모의 강의를 시연하는 전문 강사양성 과정이 진행됐다.

생명지킴이란 주변의 자살위험자를 발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람을 말한다. 시민 누구나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, 인천 e배움캠퍼스와 인천광역시 보건 의료e배움터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도 생명지킴이가 될 수 있다.

시는 이번 강사양성을 통해 전문강사 기반을 다져 인천시 인구의 1.5%인 약 4만5천명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할 계획으로, 양성된 생명지킴이가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며 지역사회의 촘촘한 자살예방 도움체계를 구축해 인천의 자살률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“자살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인 만큼 생명지킴이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.” 며, “자살예방을 위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전문 강사 인력 기반을 확대하여 생명지킴이 양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.” 고 말했다.

연구에 따르면, 자살사망자의 93.5%가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다수의 주변사람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.¹⁾ 그러나 자살예방 생명지킴이의 19.9%는 교육 수료 1년 후 자살 고위험군을 만난 적이 있었으며, 그 중 71.5%가 의사 등 전문가에게 연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명지킴이 교육의 효과성이 검증된 바 있다.²⁾

1)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,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. (2021). 자살 사망자의 정신질환 특성 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체계 구축방안 모색 : 인천 자살 사망자 심리부검 결과를 기반으로

2) 백중우, 조선진, 이수정, 웅진영, & 박종익. (2014).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[보고듣고말하기] 가게이트키퍼의 개입에 미치는 영향.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, 53(6), 358-363.

※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·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☎1393, 정신건강 상담전화 ☎1577-0199, 희망의 전화 ☎129, 생명의 전화 ☎1588-9191, 청소년 전화 ☎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건강자가진단 및 온라인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관련사진> 강사양성교육 사진

